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 개최

66명의 따뜻한 참여로 누적 모금액 2억 6,130만 원 달성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7월 17일 광양시청 만남실에서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후원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이광용 이사장, 기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탁식에서는 총 2,400만 원의 기탁금이 전달됐다. 주요 기탁자 및 기탁금액은 △(의)현경 광양서울병원(이사장 최성호) 500만 원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사장 최성호) 500만 원 △㈜포스코MC머티리얼즈(대표 서영현) 300만 원 △서영현 대표 개인 200만 원 △㈜효석(대표 김영석) 300만 원 △(주)광희(대표 이철영) 200만 원 △광양시청순중고등학교(대표 김시현) 100만 원 △(주)삼진건설(대표 김시현) 100만 원 △(주)삼진건설(대표 김시현) 100만 원이다.

최성호 (의)현경 광양서울병원 이사장은 "광양의 아이들은 광양시민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깊이 와닿았고, 그 뜻에 동참하고 싶어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호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경영총괄이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라며 "이번 기탁이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영현 ㈜포스코MC머티리얼즈 대표는 "회사에서 기탁하는 금액에 개인적인 마음을 조금 더 보탤 것"이라며 "광양시 아이들은 든든한 보육재단이 있어 참 행복할 것 같다. 재단에서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많이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주)광희 대표는 "어린이보육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 앞으로도 광양시를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영 (주)광희 대표는 "광양시에 어린이보육재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 시민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린이보육재단의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준석 광양시청순중고등학교 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재단이 좋은 사업을 많이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현 김시현세무회계 대표는 "지금도 비록 다른 지역에 있지만, 광양은 나고 자란 곳이라 항상 마음이 쓰이는 곳"이라며 "보육재단에서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해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 광양의 아이들을 내 조카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오규식 (주)삼진건설의 부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이번 기탁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꾸준히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귀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정성은 광양시 보육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광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광용 재단 이사장은 "지금까지 66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큰 금액이 모였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육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줘야 할 과제다.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재단은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는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1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기념 배지와 기탁식 사진 액자가 전달되며, 이름이 현액판에 등재된다. 현재까지 총 66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모금액은 2억 6,130만 원에 달한다. 광양/신선호 기자



공군 1전비, 광주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40여 명은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광주 동곡동 일대 대민지원에 나섰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육군 31사단 장

병들은 광산구 동곡동 일대에서 대민 지원 활동을 펼치며, 군 장비를 동원하여 수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으며, 특히, 물 폭탄을 맞은 가구공장을 정리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등 피해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다.

/오덕근 기자

고흥군, 고액 기부자 위한 '고흥애 전당' 특별 공간 마련

2천만 원 이상 기부자 예우 강화...고향사랑기부제 품격 높인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고흥애 전당'을 확대 설치하고, 2천만 원 이상 기부자만을 위한 별도의 예우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흥애 전당'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상징 공간이다.

올해 기부 한도가 연 2,0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군은 고액 기부자의 위상과 기여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예우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 공간을 통해 고액 기부자의 헌신적 기부 정신과 사회적 귀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된 전당은 고흥군청 청사 내에 전시형 구조물로 설치됐으며, 고액 기부자의 성명 등을 동판에 새겨 기부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공공의 장소로 활용된다. 또한, 감사 서한 발송, 고흥군 주요행사 초청 등 맞춤형 명예 예우도 제공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부자의 참여가 곧 고흥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기부자뿐 아니라 모든 기부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성과 예우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으며, 기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역특산 물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고흥군은 현재 유자, 김, 한우, 쌀, 고흥사랑상품권 등 40여 종의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소아 청소년 진로 지원, 스마트 영농빌리지

조성,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천경자 화백 예술거리 조성, 마을 공동세탁방 운영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문화 조 명 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구례우체국 직원 일동 구례군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기부행사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 실천

전남 구례군은 지난 21일 구례우체국(우체국장 박인자)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구례우체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직원들이 모금한 205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구례군에 전달하며, 지역과의 협력 증진과 상생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구례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박인자 구례우체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박인자 우체국장이 직원들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전달하였다. 박인자 우체국장은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상생과 협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이 기부에 동참했다"며, "우리 직원들의

정성이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년 연속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신 구례우체국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부로 보여주시는 지역에 대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구례군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하반기 기금사업과 답례품 추가 공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